

제 4 교시

#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의 근본 과제가 좋은 삶이란 무엇이고 그것을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본다. 도덕적 삶에서 중요한 것은 유덕한 품성을 갖추는 것이다. 따라서 윤리학은 덕을 함양한 사람의 도덕적 판단과 실천에 주목해야 한다. 그런데 의무론이나 공리주의와 같은 윤리학 이론들은 보편적인 도덕 규칙이나 원리만을 강조하여 도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나는 이러한 윤리학 이론들이 ㉠ 고 생각한다.

- ① 도덕 행위자 내면의 도덕성과 인성이 중요함을 간과하였다
- ②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되는 도덕 원리가 중요함을 간과하였다
- ③ 도덕적 실천을 위해 맥락적 사고의 배제가 중요함을 간과하였다
- ④ 도덕적 관행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함을 간과하였다
- ⑤ 도덕 언어의 의미를 명료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간과하였다

2. 그림의 토론 주제에 관한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토론 주제: 도덕의 최종 근거를 종교에서 찾아야 하는가?

도덕의 최종 근거는 종교 특히 만물을 창조한 신의 명령에서 찾아야 합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판단은 오류 가능하지만 완전한 존재인 신의 명령은 무조건 옳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신의 명령과 상관없이 그 자체로 옳은 보편타당한 도덕 원리가 있습니다. 인간은 타고난 이성 능력으로 그러한 원리를 인식하여 선악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① 갑: 도덕적 의무는 오류 가능성이 없는 신의 명령에서 나온다.
- ② 갑: 인간 이성은 불완전하므로 도덕 판단의 최종 근거가 될 수 없다.
- ③ 을: 윤리적 판단에서 종교적 권위보다 합리적 이성을 중시해야 한다.
- ④ 을: 인간은 누구나 선천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 ⑤ 갑, 을: 명확하고 보편적인 도덕적 판단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3. 다음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오늘날 시민들은 공적 장소에서 토론할 기회를 제대로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적 토론이 시민들에게 권장되지도 않는다. 시민들 간의 합리적 의사소통이 없으면 건강한 민주 사회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에 의해 공적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와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민주적 공론장에서 이성적인 시민들이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논증의 형태로 대화에 참가하고, 그 토론의 결과가 법체계에 반영된다면 현대 사회의 다양한 정치적·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① 토론의 절차가 아니라 토론의 결과만을 중시해야 한다.
- ② 공적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는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한다.
- ③ 토론의 결과가 반영된 법에 대해 다시 토론해서는 안 된다.
- ④ 정치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적 토론을 권장할 필요는 없다.
- ⑤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실현해야 토론의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

4. 동양 사상 (가), (나)의 입장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아직 삶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는가? 일찍 죽고 오래 사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니라네. 사람으로서 올바른 도리를 다하고,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마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네.  
(나) 삶과 죽음은 춘하추동 사계절의 운행과 같다네. 태어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죽는 것을 거부하지 않으니 자연을 따라가고 따라올 뿐이네. 이 경지에 있는 사람을 진인(眞人)이라 하네.

— <보기> —

ㄱ. (가): 죽음은 기(氣)가 흩어지는 것이므로 슬퍼할 이유가 없다.  
ㄴ. (가): 죽음보다는 인의(仁義)에 충실한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ㄷ. (나): 죽음은 인간이 윤회의 과정에서 겪어야 할 괴로움이다.  
ㄹ. (가), (나):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인간은 자식을 낳고 기르려는 본성을 가진다. 신이 정한 결혼 제도를 통해 이러한 본성은 실현된다. 성(性)은 결혼 제도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만 인간 본성에 부합하는 도덕적 행위가 된다.  
을: 성과 결혼은 별개의 문제이다. 결혼하지 않더라도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성이라면 도덕적이다. 사랑은 성을 의미 있게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 ① 갑: 성은 결혼 제도 안에서만 바람직한 것이 될 수 있다.
- ② 갑: 성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인류를 존속시키는 데 기여한다.
- ③ 을: 성은 사랑을 통해 인격적 만남의 차원으로 고양되어야 한다.
- ④ 을: 성은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⑤ 갑, 을: 성은 사랑이 없어도 당사자들의 합의만 있다면 도덕적이다.

6. 갑, 을, 병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교육 환경 같은 우연적 요인에 의해 실질적으로 평등한 교육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교육 환경이 불리한 특정 지역 학생들에게 일정한 대학 입학 정원을 할당하는 대학 입학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

을: 대학 입학 제도는 모두에게 형식적으로 동등한 지원 기회만 주어진다면 정당하다. 입학 전형에서 교육 환경의 차이는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학업 능력을 기준으로 입학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대학 입학 할당제는 부당하다.

병: 개인의 학업 능력보다는 사회 전체의 이익을 입학 전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대학 입학 할당제는 해당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여 결국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게 된다. 따라서 대학 입학 할당제는 필요하다.

- ① 갑: 교육 환경 같은 우연적 요인으로 인한 불평등은 부당하다.
- ② 을: 대학 입학 할당제는 누구의 입학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
- ③ 병: 성적 우수자가 할당제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 ④ 갑, 을: 대학 입학 전형에서 교육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면 안 된다.
- ⑤ 을, 병: 오직 학업 능력만을 대학 입학 전형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7. (가)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나)의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어진[仁] 사람만이 능히 사람을 좋아하고 미워할 수 있으며, 자신이 서고자 할 때 남도 서게 해 주고 자신이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 남도 이루게 해 준다. 따라서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아야 한다[恕].
(나)	㉠은/는 나와 더불어 한몸과 같은 존재이며, 사람의 손과 발처럼 서로 아끼고 도와주는 관계이다 [手足之義]. 상대방이 좋지 못한 행실을 하면 마땅히 정성을 다해 충고해서 올바른 도리를 깨닫도록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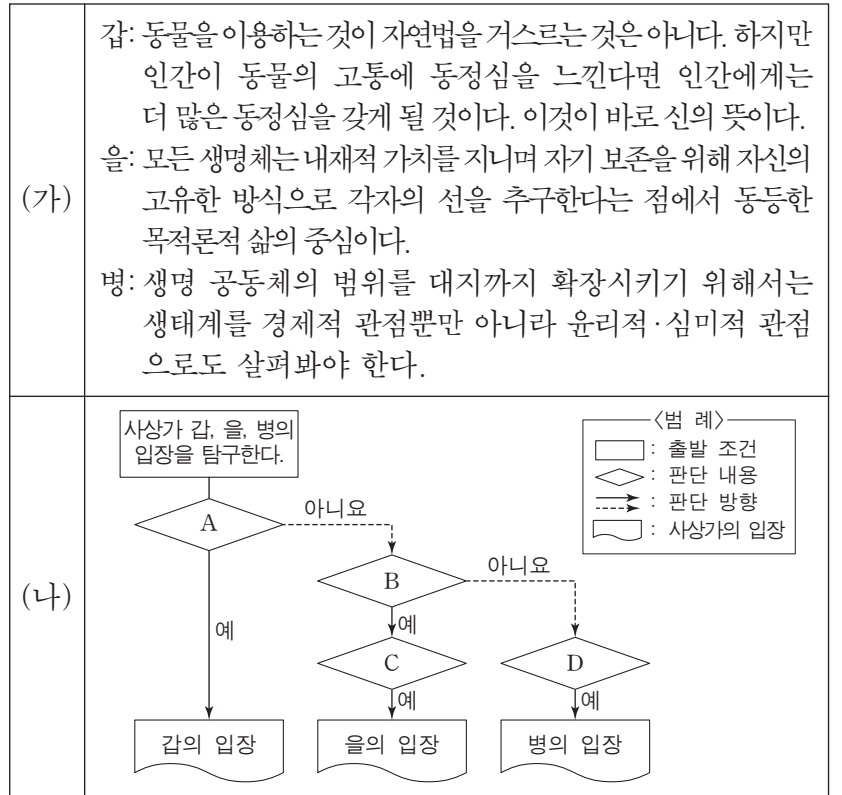
- ① 서로 간에 자애(慈愛)와 효도를 실천해야 하는 관계이다.
- ② 계약을 바탕으로 서로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관계이다.
- ③ 동기간(同氣間)으로서 사랑과 공경을 실천해야 하는 관계이다.
- ④ 가깝게 오래 사귄 벗으로서 우정을 중시하는 선택적 관계이다.
- ⑤ 삶의 동반자인 배우자로서 서로 정조를 지켜야 하는 관계이다.

8. 다음 서양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시민 불복종은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고 있는 정의감을 드러내고,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 사이에서 정의의 원칙이 존중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

- ① 시민 불복종은 정치 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폭력 행위인가?
- ② 시민 불복종은 공개적으로 주목받아야 할 위법 행위인가?
- ③ 시민 불복종은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정치적 행위인가?
- ④ 시민 불복종은 다수자의 정의감을 거부하는 행위인가?
- ⑤ 시민 불복종은 정의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인가?

9. (가)의 사상이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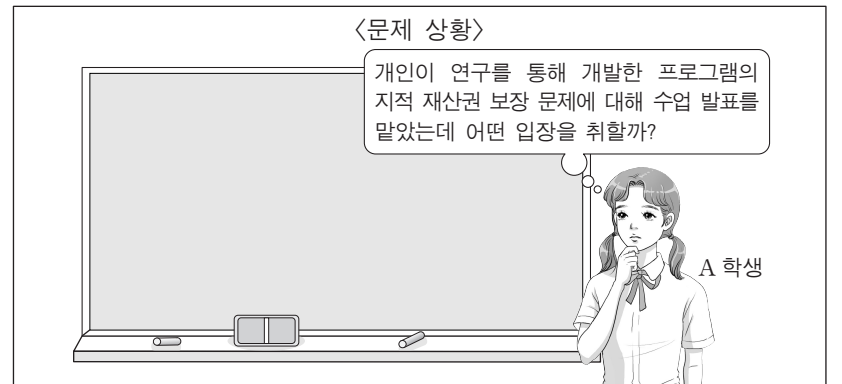
< 보 기 >

ㄱ. A: 인간은 다른 동물을 단지 수단으로만 취급해도 되는가?  
 ㄴ. B: 생명 없는 개체의 도덕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불필요한가?  
 ㄷ. C: 생명 공동체 자체가 지닌 고유의 선을 고려해야 하는가?  
 ㄹ. D: 토양이 아닌 물[水]은 도덕 공동체의 범위에서 제외되는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10. 다음 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 학생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지에서 자연적으로 산출되는 모든 열매와 거기에서 자라는 짐승들은 인류에게 공동으로 속한다. 그러나 한 개인이 모두에게 공동으로 주어진 것에 자신의 노동을 투입하면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되며 타인의 권리는 배제된다.” 라는 재산권 이론은 노동의 형태가 어떤 것이든 간에 인간의 노동을 통해 산출된 모든 산물에 적용될 수 있다.



- ① 창작자의 노력이 들어간 지적 재산의 배타적 권리 보장을 강조하세요.
- ② 사회 전체의 공리 극대화를 위한 지적 재산권의 보장을 강조하세요.
- ③ 지적 재산은 자연 발생적 산물이므로 공유의 대상임을 강조하세요.
- ④ 지적 재산의 가치는 인간의 노동에서 비롯되지 않음을 강조하세요.
- ⑤ 무형의 정신노동이 들어간 지적 재산은 공공재임을 강조하세요.

11.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정의는 본성상 정치적 동물인 사람들 사이에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분배할 것을 요구한다.</p> <p>을: 정의는 도덕과 입법의 원리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유용성을 극대화할 것을 요구한다.</p> <p>병: 정의는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p>
(나)	<p style="text-align: center;">&lt;범례&gt;</p> <p>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병만의 입장 D: 갑, 을, 병의 공통 입장</p>

<보기>

ㄱ. A: 분배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는 것이다.  
 ㄴ. B: 분배의 옳고 그름은 쾌락과 고통의 총합에 의해 결정된다.  
 ㄷ. C: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분배는 정의롭지 않다.  
 ㄹ. D: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해도 분배 정의는 실현 가능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2. 갑의 입장에서 을의 주장에 대해 제시할 적절한 견해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불필요한 고통을 없애는 방법에는 인위적 개입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것과 연명 치료 중단으로 죽음에 이르게 두는 것이 있다. 전자는 비도덕적인 살인이기에 금지되지만, 후자는 자연의 과정을 따르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있다.

을: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불필요한 고통을 없앤다는 명분으로도 절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거나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모두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경시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보기>

ㄱ.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뜻에 따라 허용되어야 한다.  
 ㄴ. 안락사가 허용되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다.  
 ㄷ. 환자가 회생할 가망이 없을 경우 연명 치료 중단이 가능하다.  
 ㄹ. 자연의 과정을 거스르지 않는 안락사 방법은 허용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13. 다음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만약 백성에게 살아갈 수 있는 일정한 재산이나 생업[恒産]이 없으면 순수하고 변함없는 마음[恒心]을 유지하기 어려우며,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편벽되고 악해질 것이다.

○ 사람은 남에게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이 있다. 그러한 선한 마음은 직업 활동을 통해 확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갑옷을 만드는 사람은 날마다 자신이 만든 갑옷으로 사람 살리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니 선한 마음을 지켜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신중하지 아니할 수 없다.

- ① 직업을 선택할 때 생계유지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② 직업의 역할 분담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없어져야 한다.  
 ③ 직업 선택의 기준에서 경제적 보상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  
 ④ 직업을 선택할 때에는 인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⑤ 직업 선택에서 사회적 기여보다 개인의 출세를 더 중시해야 한다.

14. 다음 서양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상품을 소비한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소비하는 것은 상품의 기호(記號)와 상품이 지니고 있는 이미지이다. 광고 속에 나오는 상품이 기호라면 행복, 풍요로움, 성공, 권력 등은 그 상품에 부여된 이미지이다. 사람들은 상품의 구입과 사용을 통해 자신을 돋보이게 하며 동시에 사회적 지위와 위세를 드러내고자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욕구의 체계를 발생시키고 관리하는 생산 질서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박탈당하여 사물과 같은 존재가 된다.

- ① 현대인은 소비 활동 과정에서 주체성을 상실하게 되는가?  
 ② 현대인은 생산 질서에 좌우되지 않는 소비 활동을 하는가?  
 ③ 현대인은 소비를 통해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고자 하는가?  
 ④ 현대 사회에서 소비의 대상은 상품의 이미지에 불과한가?  
 ⑤ 현대 사회에서 광고 매체는 상품을 기호로서 전달하는가?

15.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 모든 종류의 폭력이 없거나 감소한 상태가 평화이다. 이러한 평화를 저해하는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폭력과 이를 정당화하는 문화적 폭력은 평화적 수단으로 해소해야 한다.

을: 전쟁이 정의롭기 위해서는 전쟁 개시, 전쟁 수행 과정, 전쟁 종식과 평화 정착에서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비록 개전(開戰)의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전쟁일지라도 그 수행 과정과 전후 처리는 정의로워야 한다.

- ① 갑: 평화의 실현을 위한 폭력적 수단의 사용은 정당하다.  
 ② 갑: 모든 전쟁의 종식은 적극적 평화의 실현을 보장한다.  
 ③ 을: 전쟁 개시 이전에 평화적 수단을 동원할 필요는 없다.  
 ④ 을: 전쟁이 부당하게 개시되더라도 정당하게 종식될 수 있다.  
 ⑤ 갑, 을: 인명의 살상을 동반하는 어떠한 전쟁도 정의롭지 않다.

16. (가)를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나)의 물음에 대해 제시할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전통 윤리학과 달리 새로운 윤리학은 미리 사유된 위험 그 자체가 나침반이 되어야 한다. 미래에 있을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상황의 변화, 전 지구적 차원의 위험, 인류 몰락의 징조 등을 통해 비로소 윤리적 원리들이 발견될 수 있다. 이것을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부른다.
(나)	현대 사회에서 윤리적 책임과 관련하여 과학 기술자가 지녀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가?

- ①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위험만을 고려해야 한다.
- ② 생태계 전체를 예방적 책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 ③ 연구의 위험이 확실할 때에만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④ 세대 간 호혜성의 원칙에 따라 미래 세대를 책임져야 한다.
- ⑤ 사회에 대한 책임보다 과학적 연구 성과를 더 중시해야 한다.

17. 갑, 을 사상가들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법은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일반 의지를 반영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쓸 권리를 갖습니다. 사회 계약을 파괴한 살인범은 도덕적 인격이 아닌 공중의 적으로 사형에 처해져야 합니다.

법은 특수 의사의 총합인 일반 의사를 대표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사회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사형은 한 시민의 존재를 파괴하는 부적절한 전쟁 행위이므로 종신 노역형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 ① 형벌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해야 하는가?
- ② 살인범에 대한 사형 선고에 동의하는 것은 정당한가?
- ③ 사형은 종신 노역형에 비해 범죄 억제력이 열등한가?
- ④ 사형은 사회 계약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형벌인가?
- ⑤ 사형은 살인범의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형벌인가?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풍요로운 사회의 부유한 사람들은 빈곤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소득의 일부를 기부해야 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여 전 지구적인 의무를 공정하게 분담하는 것이다.

을: 질서 정연한 만민은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을 겪는 사회를 원조해야 한다. 이것은 고통을 겪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를 합당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도와서 그 사회가 질서 정연한 만민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 ① 갑: 원조 대상자들의 국적은 도덕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 ② 갑: 원조는 인류의 고통 감소와 쾌락 증진을 위한 것이다.
- ③ 을: 원조는 일정한 목표를 넘어서면 중단될 필요가 있다.
- ④ 을: 원조를 통해 만민의 복지 수준을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
- ⑤ 갑, 을: 원조는 빈곤한 모든 나라를 도와야 할 도덕적 의무이다.

19.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유전적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유전자 치료는 크게 체세포 치료와 생식선 치료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유전자 치료만이 유전적 질병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을: 동의합니다. 다만 체세포 치료는 환자 개인의 신체 세포에 영향을 주므로 허용되지만, 생식선 치료는 개인은 물론 후세대에게까지 영향을 주므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갑: 아닙니다. 그러한 체세포 치료뿐만 아니라 생식선 치료까지 허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전자 치료의 효과가 후세대로 이어져 인류 전체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생식선 치료는 변경되지 않은 유전자를 가질 후세대의 권리를 침해하며, 유전적 다양성을 감소시켜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할 수 있습니다.

- ① 생식선 치료가 유전자 치료의 범주에 포함되는가?
- ② 유전자 치료는 유전적 질병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인가?
- ③ 생식선 치료는 개인뿐만 아니라 후세대에 영향을 주는가?
- ④ 유전적 질병의 치료를 위해 생식선 치료를 허용해야 하는가?
- ⑤ 후세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유전자 치료를 허용해야 하는가?

20. 다음 글의 입장에서 볼 때, <가상 대답>의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관용은 문화적 편견과 차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나 타인의 불의한 행위에 무관심하거나 도덕적 악을 참는 것은 관용이 아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불관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개인의 자유권, 생명권과 같은 권리에 대한 침해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그 누구도 개인의 자유를 박탈할 수 없다.

<가상 대답>

전문가: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문화에 대해 관용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리포터: 그렇다면 이런 문화도 관용의 대상이 되나요? 외국에서 이민을 온 어떤 가족은 여자는 교육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서 어린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딸이 성인이 되어 외출을 하고 싶어 하는데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요.

전문가: 그런 문화는 ㉠

- ① 부모의 고유한 권리를 존중한 것이므로 용인해야 합니다.
- ② 자녀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므로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 ③ 심각한 인권 침해가 아니므로 고유한 문화로 용인해야 합니다.
- ④ 종교의 계율과 전통을 충실하게 따른 것이므로 용인해야 합니다.
- ⑤ 다문화 사회 구성원들의 연대감을 저해하므로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